



**이경림(루시아)** 24세. 정신박약아. 말은 못 하나 성격은 활발하고 잘 웃는다.  
**김문주(데레사)** 22세. 정신박약아. 글을 잘 읽고 명량하며 순하다.  
**유재현(아가다)** 18세. 다운증후군. 매사에 적극적이며 무용을 좋아한다. 고집이 세다.  
**이정미(로사)** 16세. 자폐증. 주위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으며 대화가 어렵다. 노래를 잘한다.

**까만 눈동자 속에 담겨있는 과거, 현재, 미래**  
 안나는 기분이 꽤 좋아보인다. 방금 전에 목욕을 했기 때문이다. 연신 “때,때”하며 때를 미는 시늉을 한다. 안나는 ‘사랑손’ 가족 중에서 가장 연장자다. 동생들과의 나이가 20여년을 웃돌지만 그는 그 차이를 못느낀다. 동생들과 티격태격하거나 어울리는 모습이 3,4살 아이와 다를 바 없다. 그래도 나이는 속일 수 없는지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그의 나이가 마흔 여섯임을 알리고 있다.

유리안나는 사랑손에 들어오기 전에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와 헤어져 살게 한 것은 ‘가난’이었다. 할머니는 노인복지시설로 그는 사랑손으로 보내졌다.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는지 말이 없이 묵묵히 앉아 있다.

사당5동 고갯마루에 있는 사랑손 입구. 무의탁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안식처다.



사랑나누기

# “외면하지 마세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 정신지체장애인 가정 공동체 ‘사랑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결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사랑손’의 가족들은 허가 굶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사연들을 유난히 까만 눈동자에 담고 있었다. 세상의 복잡하고 추한 것들도 그 눈속에서는 단순하고 깨끗하게 자리잡고 있는 듯했다. ‘낮은자’의 고사리손들이 모여 공동체를 꾸리고 있는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한다.

**황인식(안나)** 46세. 다운증후군. 고집이 세고 눈치가 빠르며 인정이 많다.  
**안경희(유리안나)** 42세. 나이에 비해 지능이 낮고 키가 작으며 질병이 많다.  
**김평숙(마리아)** 42세. 언어·지체장애인. 그 외는 모든 면에서 양호하다.  
**김경옥(가타리나)** 34세. 정신박약아. 모든 면에서 가장 부족하다.  
**강태이(미카엘라)** 25세. 정신박약아. 말은 잘하나 표정이 어둡고 생활면에서 둔하다.

마리아는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았다. 바자회에서 팔 행주와 카드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다. 그는 10년 전 뺑소니 교통사고로 말을 잃었고 몸이 불편하다. 갈 곳 없는 그를 사랑손이 품에 안았고 그는 쓰라린 지난 기억들을 그림으로 풀어 해친다.

카타리나는 다른 식구들과 달리 옆 동네인 사당 4동에 가족이 살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당뇨병을, 어머니는 심장판막증을 앓고 있다. 결혼한 여동생이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지만 그를 돌볼 사람은 없었다. 사랑손이 그의 손을 잡았고 그는 한 가족이 됐다. 30년 가까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세상과 격리되었던 터라 그는 말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다. 그래도 비슷한 처지의 언니, 동생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운지 표정은 밝아 보인다.

테레사와 아가다는 한글을 깨쳤다. 한 글자를 익히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반복을 했던가. 테레사는 선생님도 되고 엄마도 되고 싶다며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인다. 아가다는 생활과 학습면에서 비교적 균형있게 발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용을 잘 해 무용가가 되는 것이 꿈이다.

### ‘낮은자들’과 함께, 사랑손 엄마 이정례 원장

이렇듯 ‘사랑손’은 9명의 정신지체장애인들이 가정 공동체를 꾸리고 살아가는 곳이다. ‘사랑손’의 식구가 되기 전, 이들은 가족

들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원망스런’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 이들에게 사랑의 손을 뻗쳐 이들을 일으켜 세우며 ‘가정’의 울타리로 인도한 사람은 이정례(54)원장이었다. 그는 ‘낮은자들’의 엄마가 되어 세상의 학대와 멸시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사랑손’을 만들었다.

이 원장은 사랑손을 만들기전에는 수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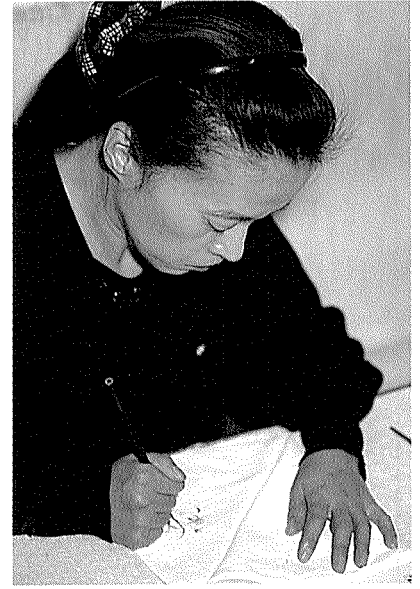
‘사랑손’의 엄마, 이정례 원장

서 10년 동안 수녀원에 있었다. 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함을 느꼈다.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하는데...’ 그는 ‘낮은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수녀원을 나오기로 결심했다. 수녀 신분으로도 낮은자들과 함께 할 수도 있었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의 나이 37세였다.

수녀원을 나온 뒤 그는 6년 동안 성당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푼푼이 돈을 모았다. 그러다가 89년, 신자인 이성순(78)씨가 자기 집을 무의탁 장애인 사업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이 원장은 아끼고 모은 1,800만원으로 그해 5월 31일 사당 5동 숭실대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사랑손’ 등지를 틀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동네 사람들의 굽지 않은 시선이었다. “왜 하필이면 우

리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냐”는 불만이 곳곳에서 들려 왔다. 이 원장은 정상인들의 이기주의에 마음 아파하면서도 하루빨리 사랑손의 ‘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더욱 정성을 쏟았다. 지난 93년 12월 24일 KBS 방송에서 ‘사랑손’의 활동이 소개되고 김수환 추기경이 이 곳에서 미사를 집전하면서 사랑손은 외부에 알려졌다. 그후론 동네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었고 동네사람이라면 누구나 아



마리아는 오늘도 쓰라린 기억들을 풀어 헤치며 바자회에 내놓을 행주에 그림을 그린다.

는 곳이 됐다.

“‘엄마’ 소리 밖에 못하던 아이들이 기본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한 가지 일이라도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장애인들과 비교해보면 수준이 떨어져 안타깝습니다.”

### 사랑의 손들이 모여져 만들어질 선한 세상

이 원장은 지금보다 좋은 환경에서 가족들이 교육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큰 일’을 벌이기로 했다. 현재의 건물을 헐고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새롭게 집을 지을 계획이다.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걱정이다. 총공사비 중 일부는 천주교 서울교구에서 장기 대출을 받았지만 나머지 비용이 문제다. 현재 한달에 두 번 바자회를 열고 있고, 몇몇 개인 후원과 신라명과 신명회, KBS 교우회 등 4곳의 단



# 사랑나누기를 함께 할 후원자를 찾습니다

본지는 훈훈한 빵내음이 사회 곳곳에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빵 한 조각을 나누는 마음이 어우러진 사회, 그 사회는 분명 건강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조그만 지원이 건강한 사회를 앞당길 것입니다.



## 후원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 일반회원 매달 2,000원 이상의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
- 특별회원 매달 10,000원 이상의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
- 천조회원 비정기적 또는 일시적 기부금
- 봉사회원 자원 봉사자

## 이렇게 후원하시면 됩니다

- 기간은 1년 이상
  - '사랑손'의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1. 아래 회원신청서에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 월간 베이커리 독자엽서 뒷면에 부착해 보내주시고,
  2. 후원금은 다음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계좌번호
- 국민은행 : 037-21-0568-412 이정례
- 한일은행 : 003-370191-01-001 이정례
- 외환은행 : 085-13-03652-4 이정례
- 상업은행 : 186-05-018074 이정례
- 조흥은행 : 342-1-001902 이정례
- 신탁은행 : 24704-89022787 이정례
- 지로번호 : 7529348 이정례
- '사랑손' 주소
- ☎ 156-09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5동 181-360
- ☎ 525-9010

지난 1월호 '사랑나누기'에 동참해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삼립유지 5구좌
- 김나연(서울 마포구 동교동) 1구좌
- 익명 7구좌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후원신청서

성명			
성별	남	여	연령
주소			전화
직장			전화
후원금			후원단체
송금은행			
기타			



신라명과 신명회 회원들이 이달에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새집을 짓기까지 사랑손 가족이 살 방에 도배를 하고 있다.

체 후원이 있지만 생활비는 물론 공사대금을 마련하기엔 벅찬 실정이다.

새집이 지어지면 1, 2층에는 교육실을 만들어 사랑손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장애인들에게도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3층은 2개조로 나누어 교사와 함께 공동 생활을 하면서 생활훈련을 하는 그룹 홈(Group Home)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지하는 운영기금 마련을 위해 상설매장을 설치하여 생필품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랑손 가족은 비정상이라는 시선을 받는다. 지능발달이 더디거나 지체되어 있는 그들이기에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질서에 적응하기란 녹록지 않다. 그렇다면 정상인들이 꾸리고 있는 사회는 과연 정상적인가. 여기서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구분은 혼란에 빠진다. 둘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단순한 결론이 그 혼란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선한 눈으로 저를 쳐다볼 때 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는 사랑손 교사 한 경(27)씨의 말에는 인간에 대한 믿음과 선한 세상에 대한 동경이 배어있다. 사랑의 손을 주저없이 내미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선한 세상은 동경이 아닌 현실로 성큼 다가설 것이다.

〈글/손인수〉